

## 동아시아 오케스트라 레퍼토리의 전통과 혁신:

2005~2024년 인천시향, 대구시향, 나고야 필하모닉,  
삿포로 심포니의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비교 분석

이 장 직\*

### 요약

본 논문은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시립교향악단, 대구시립교향악단, 나고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삿포로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의 레퍼토리 비교 분석이다. 동시에 한국과 외국 교향악단의 레퍼토리에 대한 첫 비교 연구이다. 논문에서는 작품, 작곡가, 장르, 작곡 연도에 따른 연주 빈도뿐만 아니라 주제의 유무와 반복 주기를 살펴본다. 인기 작곡가나 작품 위주의 선곡에 대한 양적 평가를 위해 시장 집중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허쉬만-허핀달 지수(HHI)를 도입했다. 분석 결과 대구시향은 나고야 필하모닉이나 삿포로 심포니, 인천시향에 비해 18, 19세기에 작곡된 스탠더드 레퍼토리 위주의 구성으로 가장 보수적인 경향을 나타내면서 프로그램의 혁신성과 다양성 면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주제어:** 오케스트라 레퍼토리, 정기연주회, 인천시립교향악단, 대구시립교향악단, 나고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삿포로 심포니 오케스트라, 허쉬만-허핀달 지수, 단일 작곡가 프로그램, 오케스트라 아카이브, 주제가 있는 프로그램, 작곡가 다양성

## I. 들어가면서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인 유럽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교향악단들이 있다.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는 1993년 창단 250주년을 맞았다. 외국의 유명 교향악단들은 창단 100주년 등을 맞아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는 책자를 발간해오고 있다(Kennedy 1982; Bohm and Staps 1993; Ardoin 1999; Warren 2002; Morrison 2004; Muck 2007; Forcker 2007; Reynaud et als. 2007; 佐野之彦 2007).

오케스트라의 역사에서 역대 지휘자, 협연자, 단원 명단보다 중요한 것은 레퍼토리, 즉 연주 프로그램이다. 오케스트라의 존재 이유는 무엇보다도 연주를 통한 청중과의 만남에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대구 시립교향악단이 2024년 창단 60주년을 맞아 발간한 60년사(백진현 2024)는 창단 이후 모든 공연의 연주곡목에 대한 소개와 함께 레퍼토리 분석을 시도했다. 홈페이지에 전자책으로 공개했다. 내년 창단 60주년을 맞는 인천시향도 홈페이지 ‘공연 실적’에 모든 연주 프로그램을 올려놓았다.

<표 1>에서 보듯 2011년 디지털 아카이브를 출범시킨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최근 전 세계의 유명 교향악단들은 창단 이후 모든 연주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개하고 있다.<sup>1)</sup> 예산 부족으로 프로그램 전체를 담을 수 없을 때는 공연 프로그램, 특히 정기연주회만큼은 기록으로 남겨둔다.<sup>2)</sup>

---

1) 보스턴 심포니의 경우 날짜, 작곡가, 지휘자, 독주자, 작품 검색이 가능하다. 뉴욕 필하모닉은 창단 이래 20,000회가 넘는 모든 공연의 프로그램 책자, 공연 계약서와 사진, 회의록, 보도자료까지 공개한다. 자료는 400만 쪽이 넘는다. 매년 15만 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다.

2) KBS교향악단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전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는 각각 50년사와 30년사를 발간했으나 모든 공연 기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없다. 2025년 창단 80주년을 맞는 서울시향은 최근 공연 기록만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을 뿐이다. 부산시향은 2022년 창단 60주년을 맞아 244쪽 분량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년사』

<표 1> 주요 교향악단의 연주회 프로그램 온라인 아카이브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archives.nyphil.org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archives.bso.org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cso.org/about/rosenthal-archives/
버팔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bpo.org/archives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www.wienerphilharmoniker.at/en/konzert-archiv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www.wienersymphoniker.at/archiv
ORF 빈 방송교향악단	https://rso.orf.at/en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www.gewandhausorchester.de/en/archive/
베를린 도이체 심포니 오케스트라	www.dso-berlin.de/de/konzerte/uebersicht/archiv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	archieff.concertgebouwworkest.nl
맨체스터 할레 오케스트라	archive.halle.co.uk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www.gso.se/en/discover/archive/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www.osr.ch/en/concerts-tickets/archives

본 연구는 인천시립교향악단(IPO)과 대구시립교향악단(DSO), 나고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NPO), 샤프로 심포니 오케스트라(SSO)의 2005-2024년 정기연주회 레퍼토리에 대한 비교 분석이다. 한국과 외국 교향악단의 연주회 프로그램을 비교하는 첫 시도이다. 오케스트라 레퍼토리에 대한 국제적 비교 연구가 시작된 것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sup>3)</sup> 이들 네 단체가 각각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연주단체는 아니지만 역대 프로그램 자료가 모두 공개되어 있고<sup>4)</sup> <표 2>에서 보듯 도시

1962-2022』을 자료집 형태로 발간했으며 251쪽 분량의 ‘부산시향 공연보 1962-2021’을 홈페이지에 전자문서로 올려놓았으나 읽거나 내려받을 수 없는 상태. [https://www.bscc.or.kr/04\\_art/?mcode=0404011300&mgb=art](https://www.bscc.or.kr/04_art/?mcode=0404011300&mgb=art) (검색일자 2025.10.25).

3) 국제적 비교는 1967년부터 2019년까지 영국과 프랑스 교향악단의 레퍼토리를 각 두 단체씩 살펴본 것이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Bols 2020). 교향악단 레퍼토리 분석은 인기 연주곡목과 작곡가에 대한 변화의 추이를 알기 위한 것으로 Mueller(1973), Hall(1997), Kremps(2010), Inoue(2018), Gómez-Vega et al.(2019), Radke(2025) 등에서 선행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4) DSO 60년사는 e-북 형태로 홈페이지(<https://dcarchive.daegu.go.kr/Viewer/19642024>)에서 볼 수 있다. SSO는 2021년 창단 60주년을 맞아 정기연주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나 검색 기능은 없다. <https://60th.sso.or.jp/concert/> (검색일자 2025.07.09). NPO는 1994년 이후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을 홈페이지(

의 규모나 교향악단의 역사가 비슷하다는 점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여기서는 교향악단 연주회 중에서도 정기연주회만 살펴보기로 한다. “정기연주회는 주로 상임지휘자 또는 수석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고 협연자의 면면도 화려하다. NHK교향악단의 경우 전체 연주회에서 정기연주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44.4%에 달한다”(이장직 2024, 80). 청소년 음악회, 팝스 콘서트, 외국 또는 국내 투어 콘서트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정기연주회 레퍼토리만 연구 대상으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청소년 음악회나 방문 콘서트 등 기획 공연도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중에서 비교적 가벼운 곡을 다시 연주하는 경우가 많아 정기연주회가 교향악단의 질적 수준을 말해준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표 2> 인천시향, 대구시향, 나고야필하모닉, 샤프로심포니 비교

	IPO	DSO	NPO	SSO
공식 명칭	인천시립교향악단	대구시립교향악단	나고야필하모닉오케스트라	샤프로교향악단
약칭	인천시향	대구시향	名フィル(나필)	札幌(사쿄)
창단	1966. 6.	1964. 12.	1966. 7.	1961. 9.
연평균 정기연주회	7.55	9.85	11	9.55
프로그램당 연주	1	1	2	2
정단원	91	65	73	73
지휘자	2	2	5	5
상주작곡가	0	0	고이테 노리코(43세)	0
상임지휘자 임기	2년	2년	3년	3년
상임지휘자 나이	46	65	41	44
사무국 직원수	7	7	22	22
소속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구콘서트하우스	공익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도시 인구	302만	214만	233만	197만
도시 면적	1,066km <sup>2</sup>	883km <sup>2</sup>	326km <sup>2</sup>	1,121km <sup>2</sup>
상주 무대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구콘서트하우스	아이치현 예술극장	샤프로콘서트홀
객석수	1,310	1,284	910	2,008
티켓 가격	1만원	1만-3만원	1,000-14,000엔	1,500-7,500엔

출처=각 교향악단 홈페이지 자료. 2025년 11월 25일 현재

phil.or.jp/concerts\_regular)에 올려놓았다. 서울시향은 2009년 이후의 공연 자료만 홈페이지에 올려놓았고 데이터베이스 검색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archive.seoulphil.or.kr (검색일자 2025.09.25). 2026년 창단 100주년을 맞는 NHK교향악단은 홈페이지에 모든 공연 기록을 엑셀 파일로 올렸다가 최근 비공개로 처리했다.

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의 국내 연구는 작곡가와 장르, 작품에 따른 연주 빈도를 조사하여 순위를 매기는 것에 그쳤다(김지순 2001, 권수천 2009, 오윤지 2015, 김혜현 2016). 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려면 국내외 다른 교향악단과의 비교가 필수적이다. 물론 그동안 레퍼토리에 관한 심층 연구가 거의 불가능했던 것은 서울시향, KBS교향악단을 비롯한 국내 오케스트라의 연주 기록이 완벽하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작곡가별, 작품별 검색 기능까지 갖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교향악단은 아직 단 한 군데도 없다.

본 논문에서는 교향악단 레퍼토리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허쉬만-허핀달 지수(Hirschman-Herfindahl index: 이하 HHI)를 도입한다. HHI는 주로 산업 분야에서 특정 기업의 시장 집중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 교향악단 레퍼토리 분석에서도 활용되고 있다(Tamburri et als. 2015, 97~108). 전체 연주곡목 가운데 상위 5위 또는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작곡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제곱한 것을 합산한 다음 10,000을 곱하면 된다. 가령 베토벤, 모차르트, 브람스, 드보르자크, 차이콥스키 등 상위 5위권(78%)에 해당하는 작곡가가 전체 곡목 중에서 각각 35%, 25%, 8%, 5%, 4%를 차지한다면 HHI 지수는 1,955이다.

$$(0.35^2 + 0.25^2 + 0.08^2 + 0.05^2 + 0.04^2) \times 10,000 = 1,955$$

HHI는 0(완전 경쟁)에서 10,000(완전 독점)까지 가능한데 100 미만은 경쟁적 시장, 1,000 미만은 비집중적 시장, 1,000~1,800은 적당히 집중된 시장, 1,800을 초과하면 고도로 집중된 시장으로 본다.<sup>5)</sup> 본론에서

5) 한경용어사전 <https://dic.hankyung.com/apps/economy.view?seq=10764> (검색일자: 2025.6.10).

는 작곡가뿐만 아니라 작곡가의 출신 국적별로도 HHI 지수를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베토벤, 모차르트, 하이든, 브람스, 드보르자크, 멘델스존, 차이콥스키, 말러, R. 슈트라우스, 라벨, 라흐마니노프, 쇼스타코비치 등 관현악곡 작곡가 중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12명을 선택해 이들이 전체 레퍼토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다. 작곡가 순위는 2019-2020년 시즌에서 2023-2024년 시즌까지 5년간 미국과 독일 교향악단의 레퍼토리를 분석한 결과를 참조했다(Radke et als. 2025).

현대음악의 비중을 계산하기 위해 작품의 초연 연도를 기준으로 삼고 19세기 이전 작품과 20세기 이후의 작품으로 나누었다. 20세기 이후도 1901~1950년과 1951년 이후로 세분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의 작품은 후기 낭만주의 계열에 속하는 경우가 많고 가령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1913)이나 드뷔시의 <바다>(1905), 라벨의 <볼레로>(1928),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1924),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1936) 등은 20세기 작품이지만 ‘고전’처럼 널리 연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1951년 이후 발표된 작품이라야 생존 작곡가의 작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sup>6)</sup>

## II. 장르에 따른 연주 빈도

교향악단이 연주할 수 있는 장르는 서곡, 협주곡, 교향곡, 모음곡, 교향시, 행진곡, 춤곡, 오케스트라 반주의 예술가곡, 콘서트 오페라를 포함하는 오라토리오 등이다. <표 3>은 4개 교향악단 레퍼토리의 장르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

6) 1951년 이후 초연된 작품 중에서도 쇼스타코비치의 <축전 서곡>(1954) <첼로 협주곡 제1번>(1959), 번스타인의 <캔디드 서곡>(1956), 브리튼의 <전쟁 레퀴엠>(1962), 구레츠키의 <교향곡 제3번>(1976)처럼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오른 곡도 있다.

<표 3> 장르별 분포

장르	IPO	DSO		NPO		SSO		
A 교향곡	127	24.6	148	25.7	161	25.2	162	34.4
B 협주곡	161	31.1	161	28.0	152	23.8	104	22.1
C 서곡	85	16.5	92	16.0	39	6.1	27	5.7
D 관현악곡	108	20.9	152	26.4	266	41.6	156	33.2
E 오라토리오	4	0.8	5	0.9	11	1.7	19	4.0
F 아리아/가곡	32	6.2	18	3.1	10	1.6	3	0.5
합계	517		576		639		471	
2005-2024 정기연주회	151		197		220		191	
A+B+C	373	72.2	401	69.7	352	55.1	293	62.2
B+C	246	47.6	253	44.0	191	29.9	131	27.8
A+D+E	239	46.2	305	53.0	438	68.5	337	71.6
협주곡 없는 프로그램	8	5.3	16	8.1	59	26.8	67	35.1

출처=필자 작성

A+B+C는 서곡, 협주곡, 교향곡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프로그램이다. 미국 교향악단의 경우 1982~1987년과 2007~2009년 시즌의 레퍼토리를 비교한 결과 협주곡과 서곡(B+C)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교향곡, 관현악곡, 오라토리오(A+D+E)의 비율이 높을수록 양질의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Matthews 2009, 20).<sup>7)</sup> IPO는 전통적인 레퍼토리 구성에 가장 가깝고(A+B+C), 협주곡과 서곡의 비중이 가장 컸다(B+C). 교향곡과 관현악곡, 오라토리오의 비중(A+D+E)도 가장 낮게 나타나 장르의 다양성 면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A+B+C : NPO < SSO < DSO < IPO

B+C : SSO < NPO < DSO < IPO

A+D+E : SSO > NPO > DSO > IPO

7) 2005년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레퍼토리를 살펴보면 정기연주회 35회 가운데 5분의 1이 교향곡만 연주한다. 오라토리오도 8회 연주했다. 협주곡이 없는 프로그램이 절반이 넘는다. 1947~1954년 빌헬름 푸르트벵글러가 베를린 필하모닉을 지휘한 프로그램 34개 중 협주곡을 연주한 것은 8개에 불과했다(Vogt 2002, 197~205). 빈 필하모닉도 2025년 정기연주회 중에서 협주곡이 없는 프로그램이 50% 이상이다.

## 1. 교향곡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에서 서곡, 협주곡이 빠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교향곡은 거의 필수적이다.<sup>8)</sup> 대부분 프로그램의 후반부에 교향곡을 배치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향곡만으로 프로그램을 꾸미기도 하는데 교향곡을 두 곡 이상 연주하면 협주곡을 생략할 수밖에 없다. 100분 이상 걸리는 말러의 <교향곡 제3번>처럼 한 곡이 프로그램 전체를 차지하기도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협주곡과 서곡 대신 교향곡의 비중이 커지면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높아진다. 한 프로그램에 교향곡만 두 개 이상 포함한 경우는 DSO 5개, SSO 16개, NPO 27개로 나타났다.

<표 4>는 각 교향악단이 연주한 교향곡의 작곡가를 10위까지 정리한 것이다. 드보르자크는 IPO와 DSO에서만 볼 수 있고 모차르트는 DSO에서만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시벨리우스 교향곡의 연주 빈도는 IPO와 DSO에 비해 SSO와 NPO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4> 교향곡 작곡가 Top 10

순위	IPO	DSO	NPO	SSO
1	베토벤	브람스	브루크너	모차르트
2	차이콥스키	차이콥스키	쇼스타코비치	베토벤
3	드보르자크	베토벤	말러	말러
4	브람스	드보르자크	베토벤	브루크너
5	슈만	말러	시벨리우스	시벨리우스
6	시벨리우스	슈만	모차르트	브람스
7	멘델스존	슈베르트	차이콥스키	하이든
8	모차르트	쇼스타코비치	브람스	차이콥스키
9	쇼스타코비치	브루크너	하이든	쇼스타코비치
10	말러	시벨리우스	슈만	슈만

출처=필자 작성

8) 교향곡 대신 모음곡을 연주하기도 한다.

## 2. 협주곡

<표 5>는 협주곡의 연주 빈도를 작곡가에 따라 1위에서 7위까지 정리한 것이다. 7위권에서 IPO와 DSO에만 나오는 작곡가는 멘델스존이다. <바이올린 협주곡> 때문이다. 프로코피예프는 SSO, NPO에는 나오지만 IPO와 DSO에는 보이지 않는다. 협주곡 작곡가 중 1~7위가 차지하는 비율은 DSO, SSO, IPO, NPO 순으로 높다.

<표 5> 협주곡 작곡가 Top 7

IPO	DSO	NPO	SSO
모차르트	18 모차르트	28 모차르트	13 모차르트
베토벤	16 베토벤	26 라흐마니노프	7 라흐마니노프
브람스	14 차이콥스키	17 베토벤	6 베토벤
차이콥스키	10 멘델스존	13 차이콥스키	6 브람스
라흐마니노프	9 라흐마니노프	9 프로코피예프	6 프로코피예프
쇼팽	8 브루흐	9 쇼스타코비치	5 라벨
멘델스존	7 시벨리우스	6 버르토크	5 차이콥스키
계	82	108	53
비율	50.9	67.1	34.9

출처=필자 작성

<표 6>은 협주곡의 연주 빈도를 독주 악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피아노 협주곡과 바이올린 협주곡의 비중이 DSO, SSO, IPO, NPO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 독주 악기별 협주곡 연주 빈도

순위	IPO	DSO	NPO	SSO
1	피아노	58 피아노	75 피아노	48 피아노
2	바이올린	53 바이올린	52 바이올린	37 바이올린
3	첼로	25 첼로	18 첼로	12 첼로
4	플루트	5 플루트	7 플루트	8 플루트
	다른 악기	24	21	50
계		165	173	155
1+2	67.3%	111 73.4%	127 54.8%	85 70.3%

### 3. 서곡 및 관현악곡

<표 7>은 서곡과 관현악곡의 연주 빈도를 작곡가별로 6위까지 정리한 것이다. 서곡과 관현악 장르는 교향곡, 협주곡에 비해 새로운 레퍼토리에 도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IPO와 DSO의 경우 1~6위에 차이콥스키, 베토벤 등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시대에 속하는 유명 작곡가들이 올랐다. IPO와 DSO에만 나오는 작곡가는 차이콥스키, 베토벤이고 NPO와 SSO에는 있는데 IPO와 DSO에는 없는 작곡가는 드뷔시, 스트라빈스키이다. 라벨은 IPO에만 나오지 않는다. SSO의 순위에서 일본 작곡가 다케미츠 토루(武満徹, 1930- 1996)의 작품이 2위에 오른 것도 주목할 만하다.

<표 7> 서곡 및 관현악곡 작곡가 Top 6

IPO	DSO	NPO	NPO
차이콥스키	15 차이콥스키	20 R. 슈트라우스	24 라벨
요한 슈트라우스	14 R. 슈트라우스	14 라벨	24 다케미츠
베토벤	14 라벨	13 바그너	24 드뷔시
베르디	10 모차르트	12 스트라빈스키	11 스트라빈스키
바그너	10 베토벤	11 드뷔시	10 드보르자크
R. 슈트라우스	9 바그너	11 브람스	8 R. 슈트라우스

출처=필자 작성

### 4. 오라토리오

여기서 오라토리오(oratorio)란 넓은 의미에서 관현악 반주에 의한 합창음악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의 오라토리오뿐만 아니라 레퀴엠, 성모애상(聖母哀傷, Stabat Mater), 사은 찬미가(Te Deum), 미사(Mass), 수난곡(Passion), 칸타타, 마그니피카트(magnificat), 콘서트 형식의 오페라(opera concertante)까지 포함한다. 합창을 동반하는 레퍼토리라고 할 수 있다(Wulfhorst 2013).

하지만 국내에서는 독창자와 합창단 출연에 따르는 예산 때문에 오라토리오를 연주하는 기회가 극히 드물다.<sup>9)</sup> DSO는 2015년 11월 13일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 공연 때 대구시립합창단, 포항시립합창단, 맑은소리소년소녀합창단을 초청하면서 적잖은 출연료를 지급했다. <표 8>에서 보듯 SSO와 NPO가 오라토리오를 자주 연주한 것은 일본에서 아마추어 합창단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2009년 4월 24-25일 NPO와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사계>를 연주한 노스 에코 합창단<sup>10)</sup>은 52명 규모인데 구성원은 10대에서 40대까지 고교생, 대학생, 회사원, 교직원, 공무원, 자영업자, 주부 등 매우 다양하다. 단원 가운데 39명이 나고야 시내에 거주하며 회사원이 27명으로 가장 많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에 모여 연습한다.

<표 8> 오라토리오

---

IPO	헨델 <메시아>, 모차르트 <레퀴엠>,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DSO	오르프<카르미나 부라나>*, 베르디 <레퀴엠>, 프로코피예프 <알렉산더 네프스키 칸타타>
NPO	베토벤 <장엄미사>*, 하이든 <사계>, 모차르트 <레퀴엠>, 베를리오즈 <클레오파트라의 죽음>, 바그너 <발퀴레 1막>, 포레 <레퀴엠>, 프로코피예프 <알렉산더 네프스키 칸타타>, 뒤뤼플레 <레퀴엠>,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SSO	브람스 <독일 레퀴엠>*, 바흐 <칸타타 제1, 2, 5, 6번>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마태수난곡>, 모차르트 <레퀴엠> <대관식 미사>, 베토벤 <장엄미사>, 슈만 <미사 사크라>, 드보르자크 <성모애상>, 브루크너 <테데움>, 포레 <레퀴엠>, 뒤뤼플레 <레퀴엠>, 브리튼 <피터 그라임스> <전쟁 레퀴엠>

---

\*표는 2회 연주. 출처=필자 작성

2017년 2월 24~25일 NPO와 프로코피예프의 <알렉산더 네프스키 칸타타>를 연주한 그린 에코 합창단<sup>11)</sup>은 1956년에 창단되었고 현재

---

9) 합창단이 오라토리오를 연주할 때도 오케스트라 반주에 따르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10) www.north-echo.gr.jp

11) www.greenecho.jp

127명 규모로 활동 중이다. NPO의 정기연주회 때 말러 <천인 교향곡>, 멘델스존 <교향곡 제2번>, 베토벤 <장엄미사>, 라벨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등에 출연했다. 2019년 4월 19~20일 NPO의 모차르트 <레퀴엠> 공연에 참가한 오카자키(岡崎) 혼성합창단은 오카자키교 교 코러스의 OB합창단이다. 2025년 6월 13일 NPO와 오타카 쇼타다(尾高惇忠, 1944-2021)의 합창 모음곡 <봄의 꽃으로 오세요(春の岬に来て)>를 연주한 코어 글란제(Chor Glanze)는 나고야대학교 학생들로 1977년 창단한 혼성합창단이다. 2025년 4월 19일 SSO와 말러 교향곡 제2번 <부활>을 연주한 사교합창단(札幌合唱団)은 SSO가 2006년 창단 45주년을 맞아 창설했다. SSO가 합창을 동반하는 공연 때 함께 연주하기 위해 만든 단체이지만 어디까지나 아마추어 합창단이다. 18세 이상이면 음악 경력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평소에는 매주 화요일 퇴근 후 2시간씩 연습하고 연주회를 앞둔 시점에 추가 연습을 한다. 출연료를 받지 않고 교통비, 악보 구입비도 개인이 부담한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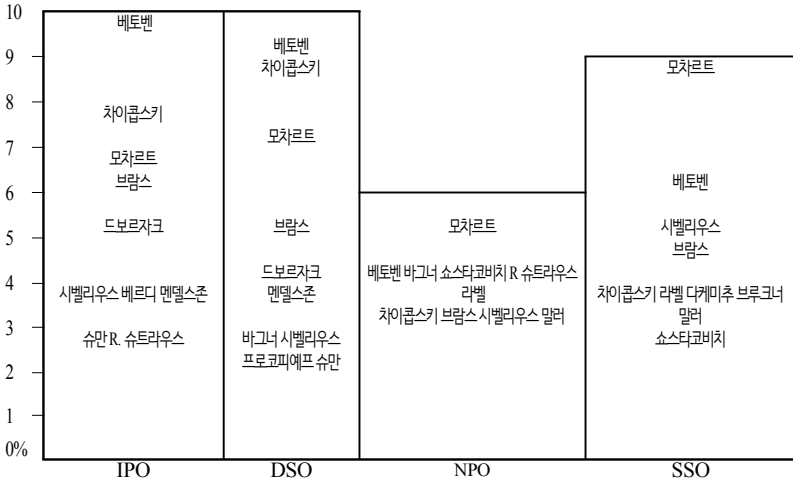
### Ⅲ. 작곡가별 연주 빈도

<표 9>는 작곡가별 연주 빈도를 10위까지 전체 연주곡목의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IPO와 DSO에는 나오는데 SSO, NPO에는 없는 작곡가는 드보르자크, 멘델스존, 슈만 등이다. NPO와 SSO에는 나오는데 IPO와 DSO에 보이지 않는 작곡가는 브루크너, 말러, 라벨, 쇼스타코비치 등이다. NPO에만 나오는 작곡가는 바그너이다. IPO와 DSO는 1위 작곡가의 비중이 10%에 근접할 정도로 높은 데 비해 NPO는 6% 미만으로 나타났다. <표 10>은 SSO와 NPO의 평균치를 DSO,

12) <https://www.sso.or.jp/sso/chorus/en.php> (검색일자: 2025. 06. 30). 2025년 1월 1일 현재 전일본합창연맹(jcanet.or.jp)에 가입한 합창단은 4,035개다.

IPO의 평균치와 비교한 것이다. 베토벤은 IPO, DSO에서 1위, SSO, NPO에서 2위를 차지했다. 특히 IPO와 DSO는 <피아노 협주곡 제4번>, NPO와 SSO는 <교향곡 제7번>을 가장 자주 연주했다. IPO와 DSO는 협주곡, NPO와 SSO는 교향곡의 연주 빈도가 높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표 9> 작곡가별 연주 빈도 Top 10



출처=필자 작성

<표 10> 한국 vs. 일본 교향악단 작곡가 Top 10

%	1위	IPO+DSO 순위	NPO+SSO 순위	1위	%	
9.4	피아노 협주곡 제5번	베토벤	1	모차르트	교향곡 제41번	6.4
8.4	교향곡 제5번	차이콥스키	2	베토벤	교향곡 제7번	5.1
7.2	피가로의 결혼 서곡	모차르트	3	라벨	어미 거위 모음곡	4.0
5.7	교향곡 제4번	브람스	4	브람스	교향곡 제2번	3.8
4.8	교향곡 제8번	드보르자크	5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3.6
3.6	바이올린 협주곡	멘델스존	6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3.5
3.2	바이올린 협주곡	시벨리우스	7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3.4
2.7	교향곡 제4번	슈만	8	바그너	탄호이저 서곡	3.1
2.6	돈후안	R. 슈트라우스	9	R. 슈트라우스	알프스 교향곡	3.1
2.3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라흐마니노프	10	브루크너	교향곡 제4번	2.8
49.7			1-10			38.9
24.8			1-3			15.5

<표 11>은 유명 작곡가가 레퍼토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IPO와 DSO는 거의 절반이고 SSO와 NPO는 각각 44.5%, 39.2%로 나타났다.

<표 11> 유명 작곡가 12인의 비중

	IPO	DSO	NPO	SSO
베토벤	50	53	27	30
모차르트	34	45	30	41
브람스	32	31	19	23
차이콥스키	40	51	19	19
R. 슈트라우스	15	14	25	10
드보르자크	26	25	12	15
말러	5	12	17	16
라벨	9	13	24	18
쇼스타코비치	9	11	25	14
라흐마니노프	13	13	16	12
멘델스존	19	21	12	10
하이든	2	6	11	8
계	254	295	237	216
연주횟수 / 전체 곡목	49.1%	49.7%	39.2%	44.5%

출처=필자 작성

<표 12>는 작곡가에 따른 연주 빈도의 추이를 5년 간격으로 1위에서 5위까지 백분율로 계산한 결과이다. IPO의 경우 1~5위 작곡가의 비중이 2005-09년 48.2%에서 2020-24년 28.5%로 대폭 줄어든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표 12> Top 5 작곡가 순위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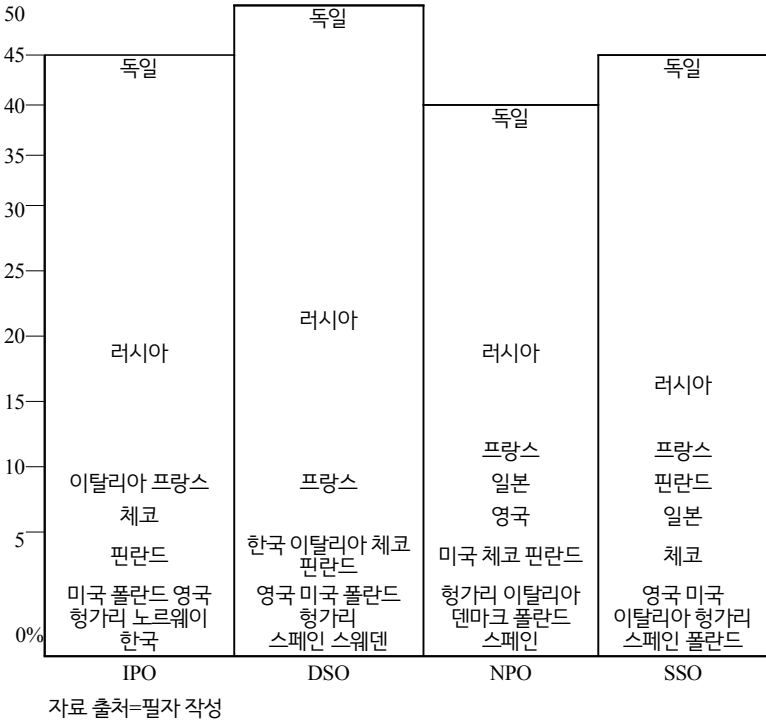
IPO	2005-09	베토벤(13.9), 차이콥스키(11.1), 브람스(10.2), 모차르트(6.5), 드보르자크(6.5)	48.2
	2010-14	베토벤(9.4), 차이콥스키(7.9), 모차르트(6.5), 베버(5.8), 드보르자크(5.8)	35.4
	2015-19	베토벤(10.0), 차이콥스키(7.1), R. 슈트라우스(7.1), 시벨리우스(5.7), 브람스(5.7)	35.6
	2020-24	모차르트(7.7), 베토벤(6.2), 차이콥스키(5.4), 요한 슈트라우스(4.6), 브람스(4.6)	28.5

DSO	2005-09	차이콥스키(10.6), 모차르트(8.5), 베토벤(7.8), 시벨리우스(5.0), 쇼스타코비치(3.5)	35.4
	2010-14	베토벤(11.4), 모차르트(11.4), 차이콥스키(8.7), 바그너(6.0), 멘델스존(4.5)	42.0
	2015-19	베토벤(12.1), 차이콥스키(7.6), 브람스(6.8), R. 슈트라우스(6.8), 모차르트(6.1)	39.4
	2020-24	드보르자크(8.0), 차이콥스키(7.3), 베토벤(7.3), 모차르트(6.6), 프로코피예프(4.4)	33.6
NPO	2005-09	쇼스타코비치(4.8), 하이든(4.2), 시벨리우스(4.2), 바그너(4.2), R. 슈트라우스(4.2)	21.6
	2010-14	바그너(5.9), 말러(4.8), 베토벤(3.6), 라벨(3.6), R. 슈트라우스(3.6)	21.5
	2015-19	모차르트(6.8), R. 슈트라우스(4.3), 라벨(3.7), 차이콥스키(3.7), 쇼스타코비치(3.7)	22.2
	2020-24	베토벤(7.8), 바그너(5.8), 모차르트(5.2), 브람스(4.5), 라벨(4.5)	27.8
SSO	2005-09	모차르트(15.0), 하이든(5.3), 베토벤(5.3), 라벨(4.5), 다케미츠(4.5)	34.6
	2010-14	베토벤(10.1), 시벨리우스(8.4), 브람스(6.7), 드보르자크(5.9), 베를리오즈(5.0)	36.1
	2015-19	모차르트(8.0), 바흐(7.3), 브람스(5.8), 베토벤(4.4), 라벨(4.4)	29.9
	2020-24	시벨리우스(9.2), 슈베르트(5.1), 브루크너(5.1), 베토벤(5.1), 말러(5.1)	29.6

자료 출처=필자 작성

<표 13>은 작곡가의 국적에 따른 연주 빈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독일과 러시아가 모든 교향악단에서 압도적인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대상으로 HHI를 조사했다. 여기서 ‘독일’이란 독일어권 국가, 즉 오늘날의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가리킨다. 18, 19세기에는 독일이라는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레퍼토리 분석에서 널리 사용하는 지리적 개념이다.

<표 13> 작곡가의 국적에 따른 연주 빈도



HHI가 1,500 미만이면 집중되지 않은 시장, 1,500~2,500은 조금 집중된 시장, 2,500 이상이면 매우 집중된 시장이다. 1, 2위, 즉 독일어권과 러시아 출신 작곡가의 비중은 DSO(71.3%), IPO(62.1%), SSO(58.9%), NPO(53.8%) 순으로 높다. HHI 지수는 DSO 2,902, IPO 2,338, SSO 1,929, NPO 1,648로 나타났다. DSO는 특정 국가 출신의 작곡가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다. 독일어권 국가와 러시아 출신 작곡가의 작품이 전체 레퍼토리어에서 67.5%를 차지한다. 작곡가의 출신 국가 수는 IPO와 DSO가 17개, SSO가 18개, NPO가 26개로 나타났다. ‘작곡자 다양성’(composer diversity)의 확보라는 점에서 IPO와 DSO, SSO에 비해 NPO가 바람직한 프로그래밍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히 IPO와 DSO의 경우 독일과 러시아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국가 출신 작곡가의 작품을 자주 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3)</sup>

#### IV. 작곡 연도에 따른 연주 빈도

2005~2024년 DSO는 김창재 <오래된 궁전의 그림 속으로>, 지성민 <에오이 오에이>, 진영민 <창발>, <크로이노스> 등 4곡, SSO는 츠치다 에이스케 <피아노 협주곡>, 오다카 아쓰다다 <첼로 협주곡>, 사카이 이타루 <색소폰 협주곡>, 이시가와 슌 <타악기 협주곡> 등 4곡을 초연했다. NPO는 상주작곡가 사카다 나오키(坂田直樹, 1981-)와 사카이 겐지(酒井健治, 1977-)에게 각 5곡, 고이데 노리코(小出稚子, 1982-)에게 2곡을 위촉, 초연했다. 독일 WDR 방송교향악단, 영국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도쿄 고세이 윈드오케스트라와 공동 위촉한 작품도 눈에 띈다. NPO는 2000년대 이후 작품 위촉이 급격하게 늘어나 2005-2024년에 모두 17곡을 초연했다. 이에 반해 IPO는 단 한 곡의 위촉 작품도 초연하지 않았다.

신작 초연은 교향악단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야 할 항목 중 하나이다. 모든 프로그램을 초연으로 꾸밀 수는 없지만 레퍼토리의 혁신을 위해서는 생존 작곡가의 작품이나 20세기 이후의 작품을 자주 연주할 필요가 있다. <표 14>와 <표 15>는 작품의 초연 시기에 따른 연주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연주 빈도 1~10위의 작품이 1900년 이전, 1901~1950년, 1951년 이후 중 언제 탄생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DSO는 레퍼토리의 75%가 1900년 이전에 초연된 작품들이다. 이에 반해 NPO는 20세기 이후의 작품이 59.4%에 달한다.

13) ‘작곡자 다양성’의 목표는 프로그램 선정 과정에서 작곡가의 국적이나 인종뿐만 아니라 성(gender)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www.composerdiversity.com](http://www.composerdiversity.com)

<표 14> 작품의 초연 시기별 분포

	IPO			DSO			NPO			SSO		
	<1901	1901-50	1950<	<1901	1901-50	1950<	<1901	1901-50	1950<	<1901	1901-50	1950<
Top 5	31	0	0	38	0	0	4	12	0	8	12	0
Top 10	31	0	0	53	6	0	15	20	0	11	20	0
1회 연주	111	48	14	121	49	29	58	132	112	153	73	54
총연주	408	86	23	445	115	33	259	252	126	285	146	54
비율(%)	78.9	16.6	4.5	75.0	19.4	5.6	40.6	39.6	19.8	58.8	30.1	11.1

자료 출처=필자 작성

<표 15> 작품의 초연 시기별 전체 분포

IPO	<1901				
DSO					
NPO				1901-1950	
SSO				1950<	

자료 출처=필자 작성

## V. 주제가 있는 프로그램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은 두 개 이상의 곡목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2~4개 작품을 아우를 수 있는 주제를 내세운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마케팅과도 연결되며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쉽다는 이유로 최근 미국에서 증가하는 추세다(Wittry 2007, 119). 예를 들면 새에 영감을 받은 음악, 음악과 스포츠, 음악과 춤, 제2차 세계 대전과 음악, 미술 작품에 영감을 받은 작품(이장직 2021) 등이다. 바흐(J. S. Bach)의 이름을 주제로 구성한 프로그램도 가능하다.<sup>14)</sup> 가장

14) B-A-C-H는 독일에서 각각 B $\flat$ , A, C, B를 가리키는 음명인데 이를 주제로 한 관현악곡으로는 리스트(Franz Listz)의 <‘B-A-C-H’ 주제에 의한 환상곡과 푸가>, 브람스(Johannes Brahms)의 <오르간을 위한 푸가 A $\flat$ 장조>, 쇤베르크(Arnold Schoenberg)의 <관현악을 위한 변주곡 op. 31>, 림스키코르사코프의 <B-A-C-H 주제의 변주곡 op. 10>이 있다.

널리 알려진 것은 한 명의 작곡가 또는 출신 국가가 같은 작곡가의 작품들로 구성하는 방법이다. <표 16>은 ‘올 브람스(All-Brahms)’처럼 단일 작곡가의 작품으로 구성된 음악회(single-composer concert), <표 17>은 같은 국가 출신의 작곡가들로 꾸민 특집이다. 특정 국가나 장소를 주제로 내세운 프로그램도 가능하다.<sup>15)</sup> 작곡가와 장르의 측면에서 다양성을 탈피해 동질성을 추구하는 경향은 1850년 이후 레퍼토리 구성의 모범으로 자리잡았다(Weber 2001).<sup>16)</sup>

<표 16> 단일 작곡가 프로그램

IPO	35	브람스(10), 베토벤(8), 시벨리우스(3), 라흐마니노프(2), R. 슈트라우스(2), 브루크너(2), 슈만, 차이콥스키, 쇼팽, 베르디, 베버, 드보르자크, 프로코피예프, 생상스
DSO	15	차이콥스키(3), 베토벤(3), 말러(2), 브람스(2), 멘델스존, 드보르자크, 쇼스타코비치, 오프, R. 슈트라우스
NPO	31	말러(7), 바흐(3), 모차르트(3), 스메타나(3), 브루크너(3), 베토벤(2), 엘가(2), 브람스, 멘델스존, 바그너, 라흐마니노프, 시벨리우스, 번스타인
SSO	41	시벨리우스(7), 베토벤(6), 말러(4), 바흐(3), 모차르트(3), 다케미츠(2), 라벨(2), 브루크너(2), 엘가(2), 하이든, 브람스, 드보르자크, 베르디, 스메타나, 차이콥스키, 라흐마니노프, 메시앙, 브리튼, 이후쿠베

프로그램을 한 곡만으로 구성한 경우도 포함, 괄호 안은 2회 이상의 횟수. 자료 출처=필자 작성

<표 17> 국가별 특집

IPO	7	러시아(4), 프랑스(2), 헝가리, 이탈리아
DSO	10	러시아(6), 프랑스(2), 영국, 한국
NPO	27	러시아(12), 프랑스(6), 체코(2), 미국(2), 영국, 헝가리, 핀란드, 스페인, 일본
SSO	11	러시아(4), 프랑스(4), 영국(2), 체코

독일어권 국가 출신 작곡가 특집은 제외. 괄호 안은 2회 이상 연주. 자료 출처=필자 작성

- 15) 가령 ‘스페인’을 주제로 파야, 투리나, 알베니스 등 스페인 출신 작곡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라벨 <스페인 랩소디>, 린스키코르사코프 <스페인 카프리치오>를 한데 엮어 연주하는 방식이다.
- 16) 1887~1892년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를 지낸 한스 폰 뷔로는 1891년 10월 26일 시즌 개막공연을 하이든 <교향곡 제5번>, 모차르트 <교향곡 제40번>, 베토벤 <교향곡 제7번>으로 꾸몄다. 은퇴를 앞둔 1893년 3월 13일에는 하이든 <교향곡 제9번>, 브람스 <교향곡 제3번>, 베토벤 <교향곡 제4번>, 4월 10일 마지막 공연은 <피델리오 서곡>, <교향곡 제5번>, <교향곡 제7번>, <레오노레 서곡 제3번> 등 ‘올 베토벤’을 연주했다.

NPO는 1996년부터 ‘사계’ ‘사랑과 죽음’ 등 매년 새로운 주제에 따른 프로그램을 선보여왔다(<표 18> 참조).<sup>17)</sup> 더 나아가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괴테의 《파우스트》, 단테의 《신곡》 같은 문학작품을 주제로 내세울 수도 있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주제로 한 음악에는 프로코피예프의 발레 모음곡, 차이콥스키의 환상 서곡, 번스타인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모음곡>, 니노 로타의 영화음악 모음곡 등이 있으며 《파우스트》를 주제로 한 음악에는 리스트의 <파우스트 교향곡>, 바그너의 <파우스트 서곡>, 슈만의 파우스트 연극 음악 중 발체곡, 베를리오즈의 <파우스트의 파멸> 중 발체곡, 구노의 <파우스트 서곡> 등이 있다.

<표 18> NPO의 주제가 있는 프로그램

러시아	2005. 4. 9.	프로코피예프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의 랩소디>,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제5번>
스페인	2005. 6. 12.	라벨 <스페인 랩소디>, 파야 <스페인 정원의 밤>, 림스키코르사코프 <스페인 카프리치오>, 파야 <삼각모자>
민속음악	2007. 7. 20.	버르토크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브람스 <헝가리 춤곡>
디아길레프	2007. 12. 14.	사티 <파라드>, 폴랑크 <모자 모음곡>, R. 슈트라우스 <벨레스크>, 스트라빈스키 <페트루슈카>
철학	2008. 4. 18.	아이브스 <대답없는 질문>, 치머만 <트럼펫 협주곡. 아무도 모르는 내 고통>, 하이든 <교향곡 제22번 철학자>, R. 슈트라우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겨울	2010. 1. 22.	다케미츠 <겨울>,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1번 겨울날의 몽상>, R. 슈트라우스 <4개의 마지막 노래>
양팽테러블의 제1번	2014. 12. 12.	모차르트 <교향곡 제1번>, 프로코피예프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월튼 <교향곡 제1번>

17) 2025년 11월 27일 서울시향 정기연주회의 제목은 ‘2025 서울시향 압판 츠베덴과 이매뉴엘 액스’다. 유명 지휘자와 협연자의 이름을 내건 공연 타이틀로 특정 주제와는 거리가 멀다. 이날 연주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3번>과 드보르자크 <교향곡 제9번>은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이에 반해 대구시향의 2025년 5월 23일 프로그램은 그리그 <교향적 춤곡 작품 64>, 라벨 <라발스> <볼레로> 등 춤곡을 주제로 꾸몄다.

## VI. 반복 주기에 따른 연주 빈도

음악감독이 새로 부임할 때 교향악단 사무국에서 맨 처음 제공하는 자료는 역대 정기연주회 레퍼토리 목록이다. 최근 연주했던 곡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다. 지휘자 다이앤 위트리(Wittry 2007, 108)는 곡목 선택을 하기 전에 오케스트라의 연주 기록을 살펴본 다음 적어도 최근 7년 이내 무대에 올린 작품은 연주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최근 20년간 5회 이상 연주한 곡이 SSO와 NPO에서는 한 곡도 없는 데 <표 19>에서 보듯 DSO는 22곡, IPO는 17곡이다. 특히 협주곡이 많다. DSO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9회나 연주했는데 2년 80일마다 다시 연주한 셈이다. 심지어 2005년 이후 1년도 못 가서 다시 연주한 곡이 DSO<sup>18)</sup>와 IPO<sup>19)</sup>가 각 10개로 나타났다.

<표 19> 5회 이상 연주한 곡목

IPO /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드보르자크 <교향곡 제8번> <첼로 협주곡>, 베토벤
DSO	<피아노 협주곡 제5번>, 브람스 <교향곡 제4번> <바이올린 협주곡>,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4, 5, 6번>,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무소르스키 <전람회의 그림>, 시벨리우스 <교향곡 제2번> <바이올린 협주곡>
IPO	드보르자크 <교향곡 제9번>,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베르디 <운명의 힘 서곡>,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5번>
DSO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 <피아노 협주곡 제21번>,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4번>, 슈만 <교향곡 제4번>, 브람스 <교향곡 제1, 2번>,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린스키코르사코프 <세에라자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자료 출처=필자 작성

- 18) 베토벤 <교향곡 제6번>, 하이든 <첼로 협주곡 제1번>,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5번> <예프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이즈>,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 브람스 <교향곡 제1번>,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슈만 <교향곡 제4번> 등.
- 19)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3번> <교향곡 제3번> <에그몬트 서곡>,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5번> <교향곡 제4번>,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무소르스키 <전람회의 그림>, 드보르자크 <교향곡 제8번>, 라흐마니노프 <피가니니 주제의 랩소디>, 시벨리우스 <교향곡 제2번> 등.

<표 20>에서 보듯 IPO와 DSO의 레퍼토리는 SSO, NPO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다. 특정 기간 내에 같은 곡을 자주 연주해 레퍼토리의 다양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NPO는 작곡가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표 20> 특정 레퍼토리에 대한 편중

	IPO	DSO	NPO	SSO
2005-24 정기연주회	151	197	220	191
작품수	288	323	510	364
연주곡	517	576	639	471
작품당 평균 연주	1.80	1.78	1.25	1.29
프로그램 당 작품수	3.42	2.92	2.90	2.46
작곡자	95	107	168	99
1회만 연주	173	181	380	267
3회 이상 연주	곡목수 62	64	22	27
	합계 266	273	72	87
	평균 4.3	4.3	3.3	3.2

출처: 필자 작성

<표 21>은 지금까지 살펴본 레퍼토리 평가 기준을 종합한 것이다. NPO가 오라토리오 연주, 협주곡 악기의 다양성 부문에서 2위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표 21> 인천, 대구, 나고야, 삿포르 교향악단 비교 순위

	IPO	DSO	NPO	SSO
정기연주회 횟수	3	3	1	2
정규 단원수	1	4	2	2
1 프로그램 2 콘서트	3	3	1	1
장르의 혁신성	4	3	1	2
협주곡 독주 악기의 다양성	2	4	1	3
오라토리오	4	3	2	1
작곡가의 다양성	3	3	1	2
작곡가 국적의 다양성	3	4	1	2
국내 창작곡 연주	4	3	1	2
연주 작품의 참신성	3	3	1	2
주제가 있는 프로그램	3	4	1	2
순위	3	4	1	2

자료 출처=필자 작성

## VII. 나가면서

IPO와 DSO, NPO, SSO 등 한국과 일본의 지방 교향악단 4개의 정기 연주회 레퍼토리를 비교한 결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곡목수가 적을수록, 개별 작품의 연주 시간이 길수록, 생존 작곡가의 작품을 자주 연주할수록, 같은 작품 사이의 시간 간격이 클수록, 유명 작곡가에 대한 의존도가 낮을수록, 협주곡보다 교향곡의 비중이 높을수록, 발췌곡보다 전곡(全曲)을 연주할수록<sup>20)</sup>, 오라토리오를 자주 연주할수록 상대적으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IPO와 DSO는 SSO, NPO에 비해 레퍼토리의 폭도 좁고 참신성도 부족하다.

정기연주회의 프로그램은 교향악단의 명함과도 같은 존재다. 가능한 최고의 레퍼토리를 무대에 올려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마케팅이나 새로운 청중 확보를 위해서는 정기연주회와 별도로 유명 클래식 시리즈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서 정기연주회와 명곡 시리즈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NPO는 성인 대상의 ‘명곡 시리즈’<sup>21)</sup>를 연간 5회, ‘어린이 명곡 콘서트’를 연간 3회 개최하고 있다. 주말 오후 2시에 시작하는 SSO의 ‘숲의 소리 친구 명곡 콘서트’(森の響フレンド 名曲コンサート) 시리즈는 매년 4회 열린다.<sup>22)</sup>

20) 스페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의 연주 시간은 75분이 넘는다. 2005-2024년 시즌 DSO는 <나의 조국> 중 제2곡 <블타버>는 3회 연주했지만 전곡 연주는 한 번도 없었다. 이에 반해 SSO와 NPO는 각 1회와 3회나 전곡 연주했다.

21) 2023년 4월 26일 베를리오즈 <로마의 카니발 서곡>, 라벨 <피아노 협주곡 G장조><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 <라발스>, 미요 <지붕 위의 소>, 2024년 1월 25일 모차르트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슈베르트 <교향곡 제9번>, 2024년 9월 6일 홀퍼딩크 <헨젤과 그레텔 전주곡>, 호소카와 <색소폰 협주곡>, 말러 <교향곡 제1번>, 2024년 3월 24일 레스피기 <로마의 소나무><로마의 축제><로마의 분수> 등이다.

22) 2022년 11월 6일 발라키레프 <러시아 민요 주제의 서곡>,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슬라브 행진곡>, 글린카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무소륵스키 <호반치시나 중 모스크바 강가의 여명>, 보로딘 <폴로베츠인의 춤>, 하차투리안 <가야는 중 갈의 춤>, 2024년 6월 8일 바흐 <관현악 모음곡 제3번>, 베토벤 <교향곡 제

레퍼토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안정된 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한 교향악단일수록 유명 작곡가의 유명 작품만 고집하는 스탠더드 레퍼토리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작품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Pompe et als. 2011). 신작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을 연주하려면 연습 시간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는 예산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교향악단 예산에서 기존 단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정단원 규모를 넘어서는 대편성의 관현악을 연주하려면 객원 단원의 초청에 따르는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레퍼토리를 교향악단의 운영과 재정 상황에 대한 검토와 연계해 재조명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레퍼토리의 혁신적 성격이 유료 관객의 증가 또는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레퍼토리의 결정 과정에서 상임지휘자와 객원 지휘자의 국적이 어떤 변수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sup>23)</sup>

인천과 대구, 나고야, 삿포로 교향악단의 레퍼토리 구성에 나타나는 질적 차이는 결국 티켓 구입으로 표출되는 청중의 취향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공익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상임지휘자 임기의 확대, 상주작곡가 제도의 도입, 아마추어 합창단의 활성화 등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투 고 일 : 2025. 12. 05

심 사 완 료 일 : 2025. 12. 27

계 재 확 정 일 : 2025. 12. 27

1번>,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2025년 6월 8일 모차르트 <교향곡 제39번> <교향곡 제40번> <교향곡 제41번>, 9월 13일 C. P. E. 바흐 <교향곡 D장조>, 헨델 <수상음악 모음곡 제21번>, 브람스 <교향곡 제2번>, 11월 8일 베토벤 <교향곡 제6번>,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와 오페레타 아리아 등이다.

23) 지휘자 겸 음악학자 리언 봇스타인(Botstein 2008)은 음악회 관객수를 늘리고 이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레퍼토리를 많이 연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대음악을 연주하면 관객수가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다(Baumol and Bowen 1968, 255; Turrini and Borgonovi 2008, 79).

## 참고문헌

- 권수천. 2009.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연주곡목에 관한 분석연구: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경성대 석사논문.
- 김지순. 2001.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 목록을 통한 작곡가와 장르별 작품 연주 상황에 대한 분석.” 『음악과 민족』 22: 135-158.
- 김혜현. 2016.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의 프로그램 고찰 (1945-2016년).” 충남대 석사논문.
- 백진현. 2024. 『대구시립교향악단 60년사』. 대구: 대구시립교향악단.
- 오윤지. 2015. “KBS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 레퍼토리에 관한 연구: 1965-2015.” 숙명여대 석사논문.
- 이장직. 2021. 『음악을 보고 그림을 듣다』.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 \_\_\_\_\_. 2024. “대구시향 연주 프로그램 분석.” in: 『대구시립교향악단 60년사』, 백진현 편, 대구: 대구시립교향악단: 78-115.
- Ardoin, John. ed. 1999. *The Philadelphia Orchestra: A Century of Music*.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Baumol, William J. and Bowen, William G. 1968. *The Performing Arts: The Economic Dilemma*. Cambridge: MIT Press.
- Bohm, Claudius & Staps, Sven-W. 1993. *250 Jahre Leipziger Stadt- und Gewandhausorchester: Dokumente einer 250jährigen Geschichte*. Leipzig: Verlag Kunst und Touristik.
- Bols, Ingrid. 2020. “Programming choices and national culture: The repertoires and canons of French and British Symphony Orchestras (1967-2019).” Ph. D. dissertation, Glasgow University.
- Botstein, Leon. 2008. “The unsung success of classical music.” *The Wall Street Journal*. October 3.  
<https://www.leonbotstein.com/leon-botstein-music-room/articles-post> (검색일: 2025.10.05).

- Forck, Gerhard, ed. 2007. *Variationen mit Orchester: 125 Jahre Berliner Philharmoniker*. Leipzig: Henschel Verlag.
- Gómez-Vega, Mafalda and Herrero-Prieto, Luis Cesar. 2019. "Measuring emotion through quality: Evaluating the musical repertoires of Spanish Symphony Orchestra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43(2): 211-245.
- Hall, E. Christine. 1997. "Survey and analysis of the repertory of twenty-six American Symphony Orchestras, 1982-1983 through 1993-1994." Ph. D. dissertation, The Peabody Institute of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 Inoue, Tokiko. 2018. "Western classical music in a non-Western culture: The repertoires of Japanese professional orchestras in the twentieth century." *Poetics*. 67: 13-25.
- Kennedy, Michael. 1982. *The Hallé, 1858-1983: A History of the Orchestra*. Dover, N. H.: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Kremp, Pierre-Antoine. 2010. "Innovation and selection: symphony orchestras and the construction of the musical canon in the United States (1879-1959)." *Social Forces*. 88(3): 1051-1082.
- Matthews, Brandon Stephen. 2009. "Programming trends in professional orchestra concerts in the United States: 2007-2009." DMA Thesis, Arizona State University.
- Morrison, Richard. 2004. *Orchestra, the LSO: A Century of Triumphs and Turbulence*. London: Faber.
- Muck, Peter. 1982. *Einhundert Jahre Berliner Philharmonisches Orchester: Darstellung in Dokumenten*. Tutzing: Verlegt beim Hans Schneider.
- Mueller, Kate Hevner. 1973. *Twenty-Seven Major American Symphony Orchestras: A History and Analysis of Their Repertoires, Seasons*

- 1842-43 through 1969-70.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Pompe, Jeffrey et als. 2011. "Factors that influence programming decision of US symphony orchestra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35(3): 167-184.
- Radke, Markus; Lepa, Dr. Steffen and Panlasigui, Melissa. 2025. "Bach, Beethoven and Brahms again? A computational view on the de facto canon of the classical orchestral music in Germany and the USA at the beginning of the 21<sup>st</sup> century." *Poetics*. 110. <https://doi.org/10.1016/j.poetic.2025.102004> (검색일: 2025.09.10).
- Reynaud, Cecile; Holoman, D. Kern and Massip, Catherine. 2007. *L'Orchestre de Paris: De la Societe des Concerts du Conservatoire a l'Orchestre de Paris 1828-2008*. Paris: Edition du Patrimoine.
- Tamburri, Lawerence; Munn, Jonathan and Pompe, Jeffrey. 2015. "Repertoire conventionality in major US symphony orchestras: Factors influencing management." *Managerial and Decision Economics*. 36(2): 97-108.
- Turrini, A., O'Hare, M. and Borgonovi, F. 2008. "The border conflict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 Programming classical music and opera." *Journal of Arts Management, Law and Society*. 38(1): 71-88.
- Vogt, Annemarie. 2002. *Warum Nicht Beethoven? Repertoire und Programmgestaltung des Berliner Philharmonischen Orchesters 1945-2000*. Berlin: Mensch & Buch Verlag.
- Warren, Richard S. 2002. *Begins with the Oboe: A History of the Toronto Symphony Orchestra*.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Weber, William. 2001. "From miscellany to homogeneity in concert programming." *Poetics*. 29(2): 125-134.

Witty, Diane. 2007. *Beyond the Baton: What Every Conductor Needs to Kno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ulfhorst, Martin. 2013. *The Orchestral Violinist's Companion*, Kassel: Bärenreiter.

佐野之彦, 2007. 『N響 80年 全記録』, 東京: 文藝春秋.

“허쉬만-허핀달 지수”, 한경용어사전 <https://dic.hankyung.com/apps/economy.view?seq=10764>, (검색일: 2025.09.03).

나고야 그린에코 합창단 홈페이지 [www.north-echo.gr.jp](http://www.north-echo.gr.jp) (검색일: 2025.09.15).

나고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아카이브 [https://www.nagoya-phil.or.jp/concerts\\_regular](https://www.nagoya-phil.or.jp/concerts_regular) (검색일: 2025.08.15).

대구시향 60년사 e-북. <https://dcarchive.daegu.go.kr/Viewer/19642024> (검색일: 2025.09.10).

삿포로 심포니 코러스 홈페이지 <https://www.sso.or.jp/sso/chorus/en.php> (검색일: 2025.06.30).

인천시립교향악단 공연실적 <https://www.incheon.go.kr/art/ART050104> (검색일: 2025.09.11).

전일본합창연맹 홈페이지 [jcanet.or.jp](http://jcanet.or.jp) (검색일: 2025.10.15).

Abstract

---

Tradition and innovation in the repertoire of  
East Asian orchestras:

Subscription concert programming of the Incheon Philharmonic,  
Daegu Symphony, Nagoya Philharmonic and Sapporo Symphony  
Orchestras from 2005 to 2024

Lee, Jang-jik

Lecturer

Department of Music, College of Art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a repertoire analysis of the subscription concert programs of the Incheon Philharmonic Orchestra, Daegu Symphony Orchestra, Sapporo Symphony Orchestra, and Nagoya Philharmonic Orchestra from 2005 to 2024. This is the first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on orchestra repertoires. It examines performance frequency of orchestral repertoires in terms of not only the musical works, composers, and musical genres, but also the year of the premiere of the musical work, thematic programming, and the repetition cycle of the same piece. For quantitative evaluation of programming decision biased on famous composers or works, the Hirschman-Herfindahl Index (HHI), which measures market concentration, is introduced. In comparison with Sapporo Symphony

and Nagoya Philharmonic Orchestras, Incheon Philharmonic and Daegu Symphony Orchestras tend to be more conservative, focusing on standard repertoire.

**Keywords:** orchestra repertoire, subscription concerts, Incheon Philharmonic Orchestra, Daegu Symphony Orchestra, Nagoya Philharmonic Orchestra, Sapporo Symphony Orchestra, thematic programming, Hirschman-Herfindahl index, orchestra archive, single-composer program, composer diversity